

# 이이남 작가, 디지털 기술·동서양 고전 '접목' 시도

서울 앤버갤러리 '조우' 개인전 NFT 도입...시공간 초월 메시지 명확히 이미지 차용 생동감 부여

동서양 고전을 아우르는 미디어아트를 선보인 담양 출신 이이남 작가가 서울에서 개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작품 이미지의 고유한 데이터를 구분해놓는 NFT(Non-Fungible Token) 기술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작가는 또 한 번 시공간을 초월해 현대적 메시지를 던진다.

광주 남구 갤러리 카페 이이남 스튜디오 오는 17일부터 4월16일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앤버갤러리에서 이이남 작가 개인전을 연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인전은 '조우-Encounter'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앤버갤러리와 이이남 스튜디오 협업으로 이뤄졌다.

새롭거나 뜻밖의 대상이 서로 마주하는 뜻을 담은 '조우'는 디지털 기술과 동서양 고전이 접목돼 시간과 공간이 만나 서로 관통한다는 의미다.

고전과 디지털 기술의 만남은 시공간을 초월, 작가가 만들어 놓은 새로운 공간에서 서로 소통하고 현대적 메시지를 주고 받게 된다.

작가는 자연의 현상과 삶의 느낌을 진솔하게 드러낸 명화들을 차용해 생동감과 의미를 부여했다.

화려한 디지털 이미지 속에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낸다. 조우는 작가와 작품, 관객의 만남이며 교감이다. 작가와 관객이 가상의 공간에서 더 밀접한 관계를 이룬다.

다. 일방적 전달이 아닌 상호 소통이 실현되는 것.

기존에 존재하는 예술형식에 자신만의 독특한 해석으로 새로운 지평을 열어온 이 작가는 동서양 고전을 소재로 한 작품들로 현대미술의 배타적 장벽을 허물고 관객을 새로운 공간, 새로운 대화의 장으로 안내한다.

이번 전시에서 이 작가는 전통 산수화, 수묵화에 디지털을 더한 작품 뿐 아니라 서양 고전 회화를 대용한 '꽃은 어디에서 오는가 I, II' 시리즈도 함께 전시된다. '꽃은 어디에서 오는가 I, II' 시리즈는 폭탄과 꽃, 팝콘이 뒤섞여 그림 속 여인들의 위에서 끊임없이 피고 지는 아름다움을 표현한 작품이다.

한편 이 작가는 1969년 담양에서 태어나 대학에서 조각을 전공. 연세대 대학원

에서 영상예술학을 전공했다.

이 작가는 고전회화를 차용,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디지털아트 영역을 개척했다.

현재 한국, 일본, 중국, 타이완, 싱가포르, 미국, 영국, 스페인, 튀니지, 인도 등 다수의 초대개인전과 단체전 세계무대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이 작가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미디어아트 거장으로 관객이 그의 작품 앞에서 5분 이상 떠나지 않는다는 '5분의 미학'의 작가로 불린다.

현존하고 있는 고전 작품들을 디지털 화면 속에 끌어들이고 후 생기를 불어넣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고고한 이미지로 소비되던 명작들이 21세기의 관객들에 다가가게 했다는 평을 받는다.

도선인 기자 sunin.do@jilbo.com

↓ 이이남 작 꽃은 어디에서 오는가 II.



## ACC재단, 광주 자치구와 문화협력체계 구축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이 지난해 광주 북구를 시작으로 자치구와 잇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역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증진을 위한 문화교류 협력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ACC재단은 지난 15일 ACC 대화의실에서 광주 남구와 문화예술콘텐츠 유통 및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광주 서구와 협력체계 구축과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ACC재단과 광주 서구·남구는 △문화예술콘텐츠 유통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김선욱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사장은 "ACC 콘텐츠가 국내외 세계에 유통되기 위해 앞서 지역에서 먼저 활발하게 선보여 주민들의 문화향유 수준이 향상될 바란다"면서 "모든 광주 자치구들과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도선인 기자

## '티켓 한 장' 광주비엔날레·디자인비엔날레 동시 관람



광주시민들이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티켓 한 장으로 광주비엔날레도 관람할 수 있게 됐다.

광주디자인진흥원이 올해 진행하는 제10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성공개최를 위해 특별 이벤트로 광주시민 우대할인 입장권을 도입했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오는 9월7일부터 11월7일까지 62일간 비엔날레전시관 등에서 'Meet Design: 디자인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입장권은 3월부터 티켓링크, 네이버 등을 통해 구매 할 수 있으며 통합 입장권의 경우 4월에 개최되는 비엔날레와 9월에 개최되는 디자인비엔날레에 동시 입장할 수 있다.

이번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에는 나건 흥 익대학교 국제디자인대학원 교수가 선정됐다. 나 총감독은 대기업과 다양한 디자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등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최근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무리 했다.

송진희 광주디자인진흥원장은 "지난 디자인비엔날레 행사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관람객 40만명이 넘는 등 디자인산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올해도 성공 개최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 ACC재단이 만든 '전쟁 후에' 21~28일 유럽 4개국서 공연

독일·덴마크·스웨덴·폴란드 무대 아시아서 벌어진 항쟁 등 표현

아시아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국제 공동 창·제작한 공연 'AFTER WAR 전쟁후에'가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4개국 순회 공연에 나선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오는 21일 덴마크 오딘극장을 시작으로 24일 독일 스튜디오7, 26일 스웨덴 웅도펜스하우스, 28일 폴란드 랍과 쿨투라에서 잇따라 '전쟁 후에' 공연을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

'전쟁 후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덴마크 오딘극단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여간 제작한 공연으로 아시아에서 벌어진 전쟁과 항쟁, 그리고 치유와 화해를 음악과 몸짓으로 표현해 낸 작품이다.

극은 차용무를 통해 서막을 알린다. 무대에 흩뿌려지는 300kg에 달하는 해바라기씨와 얼굴 없는 귀리인형에 투영된 영상 등 다양한 상징적 장치물 등이 공연에 유기적으로 활용되며 관객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한다. 또 작품에 참여한 한국과 덴마크 신진 창작자들이 2023년 새롭게 만든 동서양의 소리와 노래들이 무대 위를 흐르며 서사적인 시공간을 오간다. 특히 이번 유럽 무대에서는 국내외 다양한 공연장 규모에 맞춰 유통하기 위해 기존 대극장에서 소극장으로 재제작한 작품을 처음으로 선보인다.

도선인 기자



ACC재단이 국제 공동으로 창·제작한 공연 '전쟁 후에'의 한 장면. ACC재단 제공

## 전남문화재단, 지역문화인력 양성 탄력

양성기관 지업사업 선정 나주 등 4개 지역별 구성

전남문화재단의 지역문화인력 양성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남문화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3년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에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은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문화인력을 발굴하고 역량교육과 실무경험을 제공해 문화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으로 '지역이 과정이다: 전남 사람

책' 과정이 진행된다.

이는 전남을 기반으로 활동할 문화전문인력 발굴과 안착화를 목표로 하며 올해부터 2025년 12월 말까지 3개년에 걸쳐 진행된다.

교육과정은 프롤로그(기본과정), 에피소드(맞춤과정), 에필로그(성과공유회) 등으로 이어진다. 메인 에피소드 과정은 △나주 '문화재생공간기획' △담양 '생태문화기획' △목포 '해양도서문화기획' △해남 '농촌문화기획' 등 4개 지역별로 구성됐다. 각 지역 문화자원의 특색을 반영했다.

교육 수료 후에는 전문가 멘토링, 지역 문화현장 배치 등 수료생의 지속적인 역량강화와 일자리 매칭까지 연계된다.

3월부터 본격적으로 교육생을 모집할



전남문화재단이 지난해 곡성에서 진행한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 활동 모습. 전남문화재단 제공

예정이다.

김선출 대표는 "이번 사업은 전남 시·군 문화기관과 협력을 통해 전남 현장밀착형 문화기획자를 지속적으로 배출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며 "전남 특화형 문화인력이 지역문화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도선인 기자